

음료산업과 관련포장용기 시장동향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지난 2년간 음료산업과
관련포장용기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반적인 경기의 호전 속에 음료산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맥주를 중심으로 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류전쟁,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맞춰가는
용기의 개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 등으로 포장용기 시장이 예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도약이 예상되고 있다. 음료용 캔과 PET 병, 유리용기, 종이팩 등의
시장동향과 환경대책,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1. 머리말
2. 신제품 동향
3. 용기별 동향
 - 3-1. 유리병
 - 3-2. 금속캔
 - 3-3. 플라스틱용기
 - 3-4. 종이용기
4. 환경과 용기
5. 맺음말

1. 머리말

포장의 역사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렵, 어로, 농경 등에서 획득한 식량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나뭇잎, 조개껍질, 동물가죽, 흙으로 빚은 용기 등을 사용한 것이 포장행위의 최초로 그것들은 인류가 사용한 포장재료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옛 문헌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관영 제지공장인 紙所를, 이조 세종 2년(1420)에는 造紙所를 설치, 지류를 제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때의 지류는 포장재료이기보다는 書紙用으로 쓰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포장의 출발은 일본 등으로부터 포장에 대한 새로운 기술 등이 전래되면서 포장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41년 조선포장학회가 설립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이 증설되고 합성수지 원료의 공급이 증대됨에 따라 포장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

를 맞이하면서 포장이 보관이나 운반의 기능에서 광고·판촉의 기능으로 확대되었고, 더욱 포장은 기업경영과 마케팅, 디자인분야에서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포장의 발달이 인류생활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의 야기, 자원의 낭비, 위해포장의 등장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위협, 소비의 부당한 유인, 포장가격의 상품가격 전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초래 등 부정적 문제점이 야기되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주변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포장업계도 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과감한 설비투자 등 경제부흥의 기대 속에서도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여지며, 여름 성수기를 맞고 있는 음료 및 용기의 소비경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료는 주변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음료소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경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이 경기를 반영하는 한편 폐기

[표 1] 주요 음료의 생산·출하·재고실적

품목명	단위	구분	월 별		증감률(%)		
			94.2(r)	94.3(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누계비
소주	KL	생산	58,282	69,475	19.2	14.2	11.1
		출하	57,140	68,146	19.3	13.6	13.7
		내수	56,199	66,869	19.0	12.4	12.8
		수출	941	1,277	35.7	158.0	148.2
		재고	13,534	14,856	9.8	0.3	3.9
위스키	KL	생산	1,526	1,564	2.5	46.7	38.0
		출하	1,306	1,401	7.3	39.1	36.9
		내수	1,306	1,401	7.3	39.3	37.6
		수출	-	-	-	-	-
		재고	419	582	38.9	7.6	-22.2
탁주	KL	생산	22,552	27,317	21.1	-9.4	-7.5
		출하	22,552	27,317	21.1	-9.4	-7.5
		내수	22,552	27,317	21.1	-9.4	-7.5
		수출	-	-	-	-	-
		재고	-	-	-	-	-
맥아	M/T	생산	9,875	13,181	33.5	-6.5	-5.3
		출하	4,545	5,617	23.6	-9.7	35.7
		내수	4,545	5,617	23.6	-9.7	35.7
		수출	-	-	-	-	-
		재고	27,922	29,592	18.7	57.0	58.6
탄산음료	KL	생산	69,7799	9,438	42.5	1.1	-0.7
		출하	68,192	95,873	40.6	2.8	-0.1
		내수	68,058	95,708	40.6	2.7	-0.2
		수출	134	165	23.1	77.4	-22.3
		재고	42,180	46,505	10.3	-21.9	-22.3
과즙음료	KL	생산	42,417	53,255	25.6	-1.9	-6.9
		출하	41,455	55,479	33.8	12.9	5.9
		내수	39,994	52,957	32.4	11.2	4.9
		수출	-	-	-	-	-
		재고	8,900	8,351	-6.2	40.2	60.2
혼합음료	KL	생산	11,432	18,139	58.7	30.1	17.9
		출하	9,599	18,682	94.6	46.3	14.8
		내수	9,599	18,682	94.6	46.3	14.8
		수출	-	-	-	-	-
		재고	8,900	8,351	-6.2	-8.2	-3.0
두유	KL	생산	11,066	13,074	18.1	-6.7	-1.7
		출하	10,198	12,965	27.1	-8.2	-3.0
		내수	10,198	12,965	27.1	-8.2	-3.0
		수출	-	-	-	-	-
		재고	5,205	5,243	0.7	71.5	38.1
맥주	KL	생산	93,150	109,260	17.3	5.0	-4.9
		출하	91,138	109,573	20.2	9.1	-7.3
		내수	90,062	107,104	18.9	9.8	-7.0
		수출	1,076	2,469	129.5	-14.5	-26.6
		재고	18,523	18,207	-1.7	45.6	60.1

*자료 : 통계청 「산업통계월보」

등의 시장현황을 고찰해 보고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용기시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2. 신제품 동향

음료용기는 음료신제품, 기존 음료의 판매추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음료의 경우 최근 개발제품의 컨셉트가 용기에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년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투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경제의 성숙 등을 들 수 있는데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스포츠·레저문화의 확산에 따른 청량음료의 수요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이와함께 투명음료·물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후의 음료라고 하는 물은 긴 세월동안 공짜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수도물의 수원지 오염과 환경의 악화, 경제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탄산음료 등 기존 음료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투명음료 등에 적용되는 용기에는 종래 용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 하나가 '라이트' 화로 플레버와 단맛, 여기에 저칼로리화가 수년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스토틱의 기능성을 상품으로 한 음료에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고 있는 '스포츠드링크' 제품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이오니카 등 저칼로리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속속 등장, 새로운 음료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등 저감미, 저플레버 음료들이 물을 의식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물 발생이라는 문제 등을 야기하는 포장재 가운데 재생비율이 높아 환경친화

적이라 불리우는 포장용기 즉 유리병, 금속제 캔류, 플라스틱용기, 지류용기

과즙음료 분야에서는 농축환원과즙 100%의 제품이 완전히 정착된 반면 스트레이트 과즙은 다소간 시장을 형성하는 듯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 음료 분야에서는 커피음료와 홍차음료 등이 도입되고 있는데 캔커피 분야에서는 각 메이커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판매기 설치수가 승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기능성 음료의 분야에서는 특정 영양식품에 적합한 음료용 원재료를 기초로 하는 음료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새로운 성분의 배합과 용량의 대변화가 진행되어 종래의 드링크제와는 다른 시장기회를 꾀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음료는 83년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판매는 87년부터로 시장규모는 87년 40억원에서 92년 1,350억원, 올해에는 2,2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요인은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특성을 체내 흡수가 빠르고 달지 않으며, 타음료에 비해 건강음료라는 데에 마케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용기별 동향

3-1. 유리병

유리병은 목부분, 몸체의 형상, 치수에 따라 병, 자, 탐플러, 잭그, 바이알, 앰플, 카보이,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유리병은 동체부분이 내경보다 작은 구경의 목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유

[표 2] 탄산음료 생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1년	92년
사 이 다	1,409	1,844
콜 라	2,080	2,412
스 포 츠 음 료	870	1,350

* 자료 : 한국식품연감

[표 3] 음료·주류 포장비율

분 류	제품명	용량(ml)	포장비(원)	제품값(원)	포장비(%)
병	주스	180	68	300	22.6
	주스	180	85	500	17.6
	(easy open)	180	85	500	17.6
	(easy open)	1,580	285	3,000	9.5
	콜라	355	110	300	36.7
	소주	355	110	600	16.7
	맥주	350	150	1,000	15.0
두유	180	68	400	17.0	
Tin캔	주스	190	75	400	18.8
Al캔	안바사	200	100	350	28.6
	케토레이	200	100	500	20.0
	콜라	200	100	300	33.0
Pure Pack	우유	200	13	300	4.4
	우유	500	25	550	4.6
	우유	1,000	40	900	4.4
PKL	두유	200	32	250	12.8
Tetra Pack	우유	200	27.5	250	11.0
	우유	500	46	550	8.4
	우유	1,000	76	1,000	7.6

* 자료 : 자원재생공사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사 연구'

[표 4] 광천음료수 판매실적(14개업체)

구 분	판매량(톤)			금액(백만원)		
	내수판매	수 출	계	내수판매	수 출	계
1989	106,398	3,568	109,966	15,065	574	15,639
1990	131,739	7,246	138,985	15,087	881	15,968
1991	155,814	5,256	161,070	18,297	786	19,083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금액은 공장도가격 기준임.
 * 내수판매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물량을 포함한 수치임.
 * 14개 허가업체 : 고려종합(주), 다이아몬드정수(주), 건영식품(주), 산성정수(주), 산수음료(주), (주)실락음료, (주)스파클, 제주생수(주), (주)진로종합식품, 크리스탈정수공업사, 풀무원샘물(주), (주)일화, 한국청정음료(주), (주)서림

리용기의 총칭이다. 대부분 유리용기는 동체부분의 형상에는 엔(円)형, 타원형, 정방형을 이루고 목부분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리병 포장은 1960년대 초 대한유리공업(주)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후에 이 회사는 두산그룹에

흡수돼 두산유리공업(주)으로 되었다. 다음으로 진로유리공업(주), 태평양개발(주) 등이 생기면서 유리병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유리병은 중량이 무거워 수송, 운반비용이 높고 취급이 불편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화학적, 불투과성, 내열

성, 착색성 등이 다른 용기에 비해 우수해 국내에서는 맥주, 소주, 위스키, 청량음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자동제병 11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유리병의 생산량은 687,464톤(콜라병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병 정도), 판매량은 668,741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7.4%가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속적인 판매량의 증가로 20여개 병유리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3,000톤에 달해 지난해 동기보다 400톤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유리용기는 환경문제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선호도가 높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리병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지난 9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PET용기 등의 등장으로 주춤하기도 했다.

유리용기는 예전에 소다유리에 연화제로 비소를 첨가했었지만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독성이 있는 연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크리스탈글라스에서의 남

용출이 문제가 되고 있어 엄격한 제조상의 규제가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부의 예이며 종이용기·플라스틱용기 등의 등장으로 주춤했던 유리병 시장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질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수요가 늘고 있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것이 예상된다.

최근 유리용기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용기의 개발로 변하고 있는데 이 용기는 원료사용량이 종전에 비해 10~25% 적고 두께가 균일하게 성형될 수 있으며, 강도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리용기가 깨지면 그 충격으로 유리가 용해되는 병과 열을 가하면 증발해 버리는 유리병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가 용이한 유리병이 출현하면 포장용기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3-2. 금속캔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속캔은 스틸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제 포장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제관산업의 선두주자는 1940년대 일본 동양제관 부산공장을 인수한 동양제관(주)으로 1968년 한일제관(주)으로 경영체가 바뀌었다.

이 회사는 70년대 미국 3대포장메이커의 하나인 아메리칸캔사와 기술 제휴, 삼화제관(주)·영풍제관(주)과 3대 식관사로 발전했다.

캔은 내용량이 10갤론 이하 용기의 총칭으로 석도관, 알루미늄관, 플라스틱관, 파이버관, 컴포지트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석관용기는 최근 플라스틱, 알루미늄, 합성제품 및 유리대용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맥주와 청량음료 시장에서 석관용기의 마케팅이 성공함으로써 용도를 다양화시켰으며, 용기의 생산원가 절감을 목표로 개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지오픈(Easy open) 탭으로 된 알루미늄 뒷면판이 이미 청량음료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제관의 수요는 41억8천만관,

[표 5] 93년도 유리병 생산 및 판매 현황 (자동제병 11사)

종류	구분	'93년도 생산량			'93년도 판매량			전년동기비 판매증감
		TON	천분	백만원	TON	천분	백만원	
음료	맥주병	91,670	193,429	22,659	91,544	193,224	22,509	-2.7
	소주병	100,684	344,059	30,710	106,387	342,720	34,979	-2.8
	양자주병	45,778	109,858	16,133	44,623	106,077	185,774	-17.7
	소 계	238,132	647,346	69,502	242,554	642,021	73,262	-5.9
음용	청량음료	30,572	121,800	8,509	31,257	106,330	8,718	-38.7
	건강, 영양음료	98,473	536,419	25,437	93,482	559,001	32,198	-45.4
	중 계	367,177	1,305,465	103,448	367,293	1,307,352	114,178	-23.4
	식품, 조미료 병	74,636	252,567	31,802	77,552	260,653	35,524	+10.9
	화장품 병	13,868	194,333	32,262	11,508	181,817	37,094	+6.6
	약 병	172,388	1,590,955	48,151	188,142	1,745,662	52,325	+50.7
	농약 병	20,467	58,31	5,371	17,541	50,940	4,534	-5.9
	기타 병	30,794	314,921	13,162	21,499	218,273	6,307	+48.8
	수출 병	8,134	104,108	4,164	5,206	83,161	3,290	+35.0
	합 계	687,464	3,820,667	238,360	668,741	3,847,858	253,252	-7.4
				외주수입 합 계	18,851	90,851	5,391	+103
					707,422	3,938,709	259,143	-7.1

* 자료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올해에는 45억관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캔의 판매량을 추정해 보면 뚜껑부착형의 경우 92년 7억개, 93년 13억개로 늘어났고 뚜껑분리형은 92년 30억개에서 93년 27억개로 감소했다.

1960년대 말부터 통조림 수출전략 사업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 금속용기는 식품용기의 필수적인 기능(위생성, 보호성, 편리성,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 고속생산에 의한 작업성으로 다른 용기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캔의 종류는 용도(내용물), 용기소재 및 형상에 따라 대분류를 하고 몸체와 뚜껑의 구성수 및 제조방법, 모양, 접합수(사이드십)의 구조, 내외면의 도장 및 인쇄에 따라 세분한다.

전체 포장산업에서 금속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이며, 판매량은

90년 211,347톤에서 92년 219,878톤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가세가 별로 크지 않다.

종류별로는 맥주용 알루미늄캔은 90년의 4,227톤에서 92년의 5,916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통조림캔은 90년 21,562톤에서 92년 15,064톤으로 줄었다.

3-3. 플라스틱용기

합성수지는 여러 가지 재질이 있지만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것은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티렌이 있다.

플라스틱 음료용기 가운데 일반적으로 음료용기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PET병의 제조업체는 18개사로 사용량은 10억개 정도이다. 스티로폴용

기 제조업체 수는 100개사, 사용량은 4억2천만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레저인구의 증가와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 등과 부합하여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생산실적은 87년 11만4천톤, 89년 15만9천톤, 91년 14만8천톤으로 전체 플라스틱 제품의 9.6%를 차지하고 용기시장에서 9.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는 선진국에서는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용출된다는 설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하기도 했으나 편리성과 함께 제조원가의 저렴함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유리용기, 금속용기, 지류용기에 밀려 음료에 적용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3-4. 종이용기

종이용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면체를 삼각형으로 접은 '테트라팩'을 들 수 있다. 스웨덴 테트라팩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 테트라팩은 일회용 우유포장의 혁명이라 불렸다.

우유를 잘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취급의 편리성과 소각이 쉬운 장점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이와 폴리에틸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카톤팩은 플라스틱을 씌운 종이롤이 충전기 속에서 튜브모양을 형성, 종이튜브 속에 내용물을 충전하게 되어 있다.

포장은 내용물의 바로 들레와 밑에서 형성되고 밀폐·접착되기 때문에 완전히 충전이 이루어져 무공기 상태를 이루게 된다.

[표 6] 국내 제관 수요 및 강재 소비 전망

(단위 : 백만관, 천톤)

구 분	'93	'94	'95	'96	'97	'98
제 관 수요	4,180	4,500	4,850	5,300	5,850	6,650
Steel	3,500	3,800	4,100	4,500	5,000	5,700
Al	680	700	750	800	850	950
강재 소비						
Steel	330	345	370	395	425	480
Al	10	10	11	12	12	14

*자료 :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표 7] 지역별 제관 소비 실적('93)

(단위 : 백만관)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	경북	전남,북	계
제관소비량	1,920	210	375	670	420	585	4,180
%	46	5	9	16	10	14	100

*자료 :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표 8] 포장용기별 판매금액 구성비

(단위 : 억원,%)

구 분	'88		'89		'90		'91		연평균성장률(%'91년)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유리병	1,523	22.3	1,768	21.2	2,058	19.6	2,389	18.1	16.2
PET	692	10.4	807	9.7	1,008	9.6	1,196	9.1	20.0
CAN	3,049	45.9	3,902	46.7	4,903	46.7	6,192	47.0	26.6
종 이	1,385	20.8	1,870	22.4	2,524	24.1	3,407	25.8	35.0

*자료 :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이 포장시스템은 우유, 두유, 주스 등 상하기 쉬운 음료식품들을 초고온 멸균처리와 무균충전으로 냉장보관 없이도 6개월 이상 보존된다.

음료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용기는 지난 90년 73억개였으나 최근 우유 소비량의 감소와 학교급식용 소형팩의 공급이 줄어 지난해에는 60억개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이용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펄프가의 상승과 대형용기에 적용되던 과즙음료 등의 퇴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량 주문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종이용기는 단일재질에 의한 장기 보존 기술이 개발되고 이 재질에 필요한 독특한 상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친화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리용기, 금속용기보다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종이용기는 기존 우유 및 과즙음료 외에도 청량·탄산음료 등에 그 수요를 늘려나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환경과 용기

액체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기의 경우 여름의 장기간 직사온도를 상정하여 이행시험을 통해 내용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최근에는 보존기간 표시의 문제와 함께 용기포장으로부터 용출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맛이 좋은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배리어성, 투명성 등 식물의 변질, 부패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용물의 안정성과 위생성을 강조했던 음료포장 용기는 최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도출시

[표 9] 주요품목별 재활용 현황

구 분	90			91			92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폐지(천톤)	4,325	1,875	43.4	4,876	2,094	43.0	5,281	2,325	44.0
고철(천톤)	24,867	7,187	28.9	28,264	7,879	27.9	29,364	8,817	30.0
유리병(천톤)	704	322	45.7	816	368	45.1	733	314	42.8
우유팩(천톤)	62	3	5.0	62	5	8.0	62	13	22.0
농촌패비닐(톤)	86,062	69,381	80.0	79,932	70,894	88.0	80,424	73,191	91.0
농약빈병(천개)	62,754	44,651	78.1	64,354	47,116	73.2	73,942	48,923	66.2
폐기전제품(천톤)	-	-	-	240	-	-	249	-	-
폐합성수지(천톤)	1,016	101	10.0	1,148	114	10.0	1,326	132	10.0

* 자료 : 자원재생공사

키고 있다.

환경보호와 용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금속캔의 리사이클은 알루미늄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틸의 투피스캔이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뚜껑은 STAY ON TAB 타입의 알루미늄제가 사용되어지고 있어 유기물로써 고물상, 쓰레기집하장에서 수거되어 용해공장에서 1차 처리된 후 다른 산업용품으로 재이용되고 있다.

PET 재질은 재활용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이중합법에 의한 케미컬 리사이클에서 회수되는 용기를 일도분자 레벨로 분리하여 용기용은 원료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종이용기는 슈퍼의 가두에서 회수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재활용 제품의 판매가 부진, 경비적으로 회수금 브론티어(자원봉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음료용 1회용기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예탁금제도가 도입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포장용기 회수를 위해 예탁금을 징수하고 구매자

가 용기를 반납할 때 예탁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재충전 가능 용기의 판매업자가 DSD에 참여하여 회수용기를 재사용할 경우 예탁의무는 면제되지만 재충전식 용기가 전국적으로 72%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음료용기에도 예탁금이 부과된다.

72%라는 할당률은 맥주, 미네랄워터, 음료수, 광천수, 탄산수, 주스류, 낙타류, 과일주스류, 무탄산청량음료, 와인에 적용되며 기타 품종별 할당률은 없다.

저온 살균우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17%라는 재충전 가능 할당률이 적용되고 있다.

음료용기의 재활용은 비교적 다른 포장재에 비해 잘 되는 편이나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진 상태이다.

유리용기나 금속캔의 경우 관련 협회나 조합에서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회수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음료용기 소비의 증감은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겠지만 경기 외에 환경이 끼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플라스틱류 용기가 등장한 뒤 유리용기, 종이용기의 성장이 둔화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플라스틱용



기는 주춤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이 쉬운 소재의 용기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환경문제가 음료용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5. 맺음말

올해 음료시장은 2조원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거대한 음료시장 만큼이나 음료용기도 다양화되고 독특한 재질 및 디자인 등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을 기본으로 하는 음료제품은 그 품질이 중요시되어 왔으나 과거와는 달리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주류나 청량음료, 우유 등의 시장에 생수가 끼어

들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들도 시장변화에 따른 희비곡선을 그리고 있다.

카톤팩과 PET용기의 급속한 성장으로 침체됐던 유리용기가 울들어 재고물량이 없을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15~20%의 성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종이용기는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플라스틱용기, 금속캔용기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 용기들의 수요량 변화는 경기의 반영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인 문제, 환경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것도 수요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 등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용기시장에서의 우위점유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음료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소재의 음료용기의 수요가 늘고 있다면 다른 소재의 수요는 줄거나 제자리에 멈추었던 경우가 종종 있다.

새로운 음료의 개발에 따른 수요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포장돼 있는 내용물 음료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음료시장과 함께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용기시장도 올해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취향에 힘입어 무색, 무향, 무첨가라는 장점을 내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광천음료수의 성장만큼이나 용기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선진 기자